



리오에서의 이클레이 ICLEI at Rio+20

The Rio+20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ok place in Rio de Janeiro, Brazil, from 20-22 June 2012. ICLEI has been involved in the Rio+20 process in three ways:

리오 +20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는 2012.6.20-22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다. 이클레이는 리오+20 과정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였다

Advocacy. ICLEI has followed the preparations and negotiations of the outcome document closely and is the only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which has been present and actively engaged at every single UN preparatory meeting from May 2010 to June 2012. In addition, ICLEI has made a number of substantive contributions. ICLEI has also acted as Local Authority Major Group Co-Organizing Partner (LAMG OP) for the Rio+20 Secretariat.

옹호. 이클레이는 성과서류의 준비와 협상을 면밀하게 수행하였으며 2010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유엔의 개별 회의에 참석하여 능동적으로 관계하였다. 그에 더하여, 이클레이는 수 많은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클레이는 또한 리오 +20 사무국을 위한 지방당국 주요 그룹 주관 파트너(LAMG OP)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Global Town Hall. ICLEI organized the Global Town Hall as an arena for presentations, dialogues and debates on a sustainable urban future. We invited our sister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relevant UN agencies and international partners to join. The Global Town Hall was conceived as a crystallization point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ir partners to reflect on the themes of Rio+20, green urban econom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글로벌 타운 홀. 이클레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미래에 관하여 발표, 대화 및 토론을 위한 활동장소로서 글로벌 타운 홀을 주관하였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매 지방정부조직들, 관계된 유엔 기관들 및 국제적 파트너들이 참여 하도록 초청하였다. 글로벌 타운 홀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리오 +20의 주제들, 녹색 도시경제 및 제도적 구조를 반영하는 지방정부들과 그들의 파트너들을 위한 결정 점으로서 이해되었다.

Participation in partners' events. ICLEI's political leadership as well as senior staff members participated in a variety of side events organized by our international partners.

ICLEI's evaluation of the outcomes of Rio+20

리오+20 결과에 관한 이클레이의 평가

Human civilization on earth is under threat. The global trend of climate change and related trends of increased frequency and severity of extreme weather events, sea-level rise etc. as well as the trends of natural resource decline and biodiversity loss are causing concern. Everyone we met and heard from was of the opinion that we need to change course towards an inclusive, green economy, and that we have to act rapidly and go for radical solutions.

지구상의 인류문명은 위험에 처해 있다. 자연자원의 감소 및 생물다양성의 감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추세 및 증가된 극심한 기후상황, 해수면 증가 등등의 빈번성과 흑심과 상호 관련된 추세들이 제반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만나 그들로부터 경청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포괄적 녹색경제를 향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하고 과감한 해결책들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Everyone agreed that not only cities and communities will be the main victims of these unfavorable trends, but cities are key to turning our economy green and our civilization sustainable.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들이 이러한 불리한 추세들의 주범들일 것이지만, 도시들은 우리들의 경제를 녹색경제로 그리고 우리들의 문명을 지속 가능하게 전환하는 열쇠라는 데 누구나 의견을 같이 하였다.

We had hoped that the Rio+20 summit would result in decisions by the governments assembled in Rio which would trigger the development of an inclusive, green economy and establish a global institutional architecture endowed with competencies and powers that would ensure the safeguarding of human living conditions and ecosystems services.

우리들은 리오 + 20 정상회의가 포괄적 녹색경제의 발전을 유발시키고 인간의 생활 조건들과 생태계 서비스들에 대한 보호수단을 보장할 역량과 능력이 구비된 세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 리오에 모인 정부들에 의해 결정이 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We now see that all the good will, energy, brain capacity and money that went into the Rio+20 process have resulted in dozens of pages of paper, which contain hardly any commitment by governments. Instead, national governments reaffirm what they had already resolved long ago, list non-binding intentions, and acknowledge the activities by other actors such as local governments.

우리들은 지금 리오+ 20 과정에 투입한 모든 선의, 행동력, 지력 및 돈이 수많은 쪽들의 서류로 결론이 났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들은 어떤 공약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 보다는, 국가정부들은 그들이 오래 전 이미 해결했던 바를 재확인하고, 구속되지 않는 의향들을 바라면서 지방정부들과 같은 그 밖의 행위자들의 활동들을 인정한다.

It remains unclear who should be in charge and accountable for taking decisions on the transformative actions needed, and for rapid implementation.

필요로 하는 변화를 시키는 행동들과 신속한 이행을 위한 결정들에 관해 누가 책임자이며 책임져야 할 지가 불확실하다.

Do cities have to step in where governments are failing to take effective action? Cities are cooperating internationally without borders, without customs, without military forces. They can address the issues of the future without the global power play that we see going on at inter-governmental level. We have once more seen governments defending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working together on a common global agenda. We suspect that the mechanisms, rules and routines of international diplomacy are outdated and incapable of designing and bringing about a sustainable future.

도시들은 효과적인 행동을 하는데 실패를 하고 있는 정부들 속으로 진입해야 하는가? 도시들은 국경도 없고, 관세도 없으며 군사력도 없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들이 정부간 수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 세계적인 힘의 정책 없이도 미래에 대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들은 정부들이 공통적인 세계적 의제들에 관해 함께 일하는 것 보다 국가적 이해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다. 우리들은 국제외교의 메커니즘, 규칙 및 기계적인 수법들은 시대에 뒤진 것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이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Will the United Nations want to include local governments in the mechanism of decision shaping and even decision making, or shall local governments create their own voluntary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commitments and accountability? They have actually started doing so. Twenty years ago, with Agenda 21 being adopted by the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s at the Rio Earth Summit, Local Agenda 21 was spearheaded by ICLEI and may be regarded as a global success story of moving towards sustainability. In contrast, not many countries can demonstrate a national success story of having implemented a national Agenda 21. Similarly, it took nations 13 years to get from the adoption

유엔은 지방정부들을 의사결정을 구상하고 결정을 하는 데 까지도 포함하길 원할까? 그렇지 않다면, 지방정부들이 공약과 책임을 위하여 그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제도적 구조들을 만들까? 그들은 사실상 그렇게 시작하여 오고 있다. 20년 전, 리오 지구정상회의에서 국가 및 정부 수장들이 지방의제 21을 채택함으로써, 지방의제 21은 이클레이에 의해 선두에 서게 되었고 이것이 지속가능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세계적 성공담으로 간주될 지도 모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국가들은 국가적 의제 21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성공담으로 과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들이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정을 교토 의정서의 채택을 이행규칙으로 진입하는데 13년 걸렸다. 대조적으로, 이클레이가 최초의 기후변화에 관한 지방지도자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일천여 지방정부들을 지방기후행동계획에 참여하도록 했던 도시 기후 보호 캠페인을 창시하기까지 지방정부들은 단지 8개월이 소요되었다. 2010년에 지방정부수장들이 기후에 관한 세계도시협약(멕시코 협약)에 서명하여 자발적인 기후행동과 책임에 관해 공약하였으며 세계적 보고 플랫폼으로서 카본도시기후등록을 설립하였다. 2011년에는, 지방정부수장들이 더반 적응헌장에 서명하여 기후변화적응행동에 대해 공약하였다.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rules for implementation, the Kyoto Protocol. In contrast, it took local governments only 8 months until ICLEI convened the first municipal leaders summit on climate change and initiated the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Campaign which involved about thousand local governments in local climate action planning. In 2010, Mayors signed the Global Cities Covenant on Climate (Mexico City Pact), committed to voluntary climate action and accountability, and established the carbon Cities Climate Registry as a global reporting platform. In 2011, Mayors signed the Durban Adaptation Charter, thereby making commitment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

The most remarkable outcome of Rio+20 may indeed be the global and regional, voluntary commitments. We think it's good to get all relevant actors committing to sustainability action. But Rio+20 failed establishing an accountability framework with a performance reporting mechanism. Even the development of an accountability framework is left to voluntary action.

리오+20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정말로 세계적, 지역적, 자발적 공약인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지속 가능한 행동을 공약하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리오+20은 이행보고 메커니즘을 구비한 책임성을 이루는데 실패하였다. 책임구조의 개발마저도 자발적 행동에 맡기고 있다.

20 years ago cities were referred to as a problem rather than as part of the solution. Today cities are acknowledged as a major actor. The Rio+20 outcome document contains unprecedented reference to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we are missing a tangible commitment by governments to enhance the capacity of cities to take effective action.

20년 전 도시들은 해결의 일부라기 보다는 문제로 언급되었다. 오늘날 도시들은 주요 행동가로서 인정되어 있다. 리오+20 결과서류에는 도시 및 지방정부들에 관해 전혀 없이 언급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효과적 행동을 취할 도시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들의 실제적 공약이 빠져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Rio+20 failed addressing appropriately and resolving crucial issues, especially the elimination of perverse subsidies such as subsidies to fossil fuel.

리오+20은 중요한 이슈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와 같은 그릇된 보조를 제거하는 것을 적절히 해결하고 해소하는 데 실패하였다.

We are proud that during the entire Rio+20 process we have seen ICLEI being elevated on the basis of its longstanding leadership in global advocacy, developing solutions, accelerating action, spurring change, and paving pathways towards local sustainability.

우리들은 리오+20 모든 과정동안에 지방적 지속 가능성을 향하여 세계적 옹호, 해결책 개발, 행동촉진, 변화 촉구 그리고 진로개혁에서 오래 동안에 걸친 리더십의 바탕 위에서 발전하고 있는 이클레이를 보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ICLEI at Rio+20 2

ICLEI continues driving agendas for sustainable cities

이클레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들을 위한 의제들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We have seen governments, businesses, research institutes, NGOs and media pay attention, or even focus, on cities. For example, the three Rio Conventions staged a cities day, and the Brazilian government organized a sustainability dialogue on cities.

우리들은 정부, 기업, 연구기관, 비 정부기구 및 언론들이 도시에 대해 유의하고 초점을 두기까지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자면, 세 가지 리오 협약들은 도시들의 날을 시행하였으며, 브라질 정부는 도시들에 관한 지속 가능한 대화를 주관하였다.

ICLEI itself organized the Rio+20 Global Town Hall during the entire week from 18-22 June, which was attended by 5000 people. The Global Town Hall was hosted by the State of Rio de Janeiro and endorsed by UNDESA, UNEP and others. The program organized in partnership with many other organizations saw 24 sessions with over hundred speakers.

이클레이는 자체적으로 6월 18~22 전주간 동안 리오+20 글로벌 타운 홀을 주관하였는데 여기에 5000 명이 참석하였다. 글로벌 타운 홀은 리오 데 자네이로 주가 주최하였으며 유엔 경제사회부, 유엔 환경계획 및 그 외 기관들이 후원하였다. 기타 많은 기관들과 파트너십으로 만든 프로그램에는 24 개 세션에 수 백 명의 연사들이 참여 하였다.

The culminating session of the Rio+20 Global Town Hall was the session “Sustainability Leadership for the Urban World 2030” with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리오+20 글로벌 타운 홀의 절정에 달했던 세션은 반 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함께 한 “2030 도시세계를 위한 지속 가능성 리더십” 세션이었다.

ICLEI held a successful official side event “Decisions we need for the city of 2030”, and ICLEI Mayors and staff were asked to speak at about 25 side events organized by partner organizations.

이클레이는 “2030 년의 도시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토론” 공식 사이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클레이 지방정부 수장들과 직원들은 파트너 조직체들이 마련한 약 25 개의 사이드 이벤트에서 연설하도록 요청 받았다.

Another special moment, ICLEI President David Cadman addressed the opening plenary of the Rio+20 conference.

다른 특별한 시간에 이클레이 데이비드 캐드만 이클레이 회장이 리오+20 회의 개회식 총회에서 연설하였다.

Our ICLEI World Congress 2012 in Belo Horizonte preceding Rio+20 saw more than 1400 ICLEI Members, partners, global strategists, academics, businesses and NGOs exchanging solutions and experiences and developing local sustainability strategies for the future.

리오+20 에 앞서 벨라 호리존치에서 개최된 우리들의 2012 이클레이 세계총회에는 1,400 명이 넘는 이클레이 회원, 파트너, 세계적 전략가, 학계, 기업 및 비 정부기구들이 모여 지방의 지속 가능성 또는 미래에 대한 해결책 및 경험들을 교류하면서 그에 대한 전략을 전개하였다.

At our World Congress 2012, we released the global review and case studies “Local Sustainability 2012- Taking Stock and Moving Forward” as well as Global Environmental Outlook (GEO) 5 for Local Governments, with UNEP.

우리들의 2012 세계총회에서, 우리들은 지방정부들을 위한 세계적 환경전망 5 뿐만 아니라 “ 지방의 지속 가능성 2012—실적평가 및 전진”이라는 제하의 세계적 검토 및 사례 연구서들을 유엔 환경계획과 함께 공개하였다.

At Rio+20 we launched the GreenClimateCities initiative and, together with partners, the Global Initiative on Urban Resilience.

리오+20 에서 우리들은 도시회복력에 관한 세계적 계획인 파트너들과 함께 녹색기후도시계획을 발족시켰다.

We have been encouraged by Rio+20 to continue driving the *sustainable cities* agenda. Rio+20 has reinvigorated our strategy of supporting cities on the pathway to becoming resilient, resource-efficient, biodiverse and low-carbon, to turn their urban economy green and build smart infrastructure, with the ultimate goal of ensuring a healthy & happy community.

우리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의제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리오+20 에 고무되었다. 리오+20 은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보장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도시경제를 녹색화시키고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회복력 있고, 자원 효율적이며, 생물종다양성 및 저탄소화 되도록 하는 통로 위에서 도시들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전략에 다시 활기를 띠게 하였다.

ICLEI at Rio+20